

그리고 사회는 의사에게도 의사가 의료윤리와 의도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의사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다.

그러므로 환자와 의사의 진정한 관계 정립

을 위해서는 의사의 윤리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사회의 의료보장도 같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간호사

- 병자의 날 기념-

최 의 순 교수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장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이 우리 의료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병자들을 통해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랑에 찬 돌봄으로 헌신함으로써 치유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하여 각종 불치의 새로운 질병 출현과 환경오염, 눈부신 생명공학 발전의 부작용으로 인간의 귀중한 생명이 위협 당하고 있는 현세에 가톨릭 의료인으로서 지녀야 할 정신적 자세를 다짐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 하고 생명을 돌보는 일을 천직으로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으며 이 특별한 은총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간호직을 흔히 제 3의 성직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며 극단의 이기주의로 가치관이 전도되고 남을 누르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경쟁사회에서 누구를 돌본다는 일, 특히 병고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치유하도록 돕는 일은 근본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 없이는 해내기 힘든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art), 지식(science), 정신(spirit) 삼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참 간호가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듯이 기술, 지식, 정신 중 으뜸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투철한 간호정신이 결여된 기술과 지식은 그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발달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으나 그 반대로 도덕적,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손과 머리는 있으나 마음이 없어진 간호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호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톨릭 간호사들은 누구보다도 제 3의 성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소양과 여건을 갖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심에 성모님이 공동구원자가 되시듯이 의사가 병자를 치유함에 간호사가 공동 치유자라는 점에서 성모님과 간호사는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

다. 간호사 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리고 참다운 어머니의 표상은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성모님의 온유하심과 자애로우심,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겸손하신 자태, 뜻밖의 일을 겪을 때마다 함부로 속단하지 않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신 사려 깊은 처신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하느님 뜻에 맞는 가톨릭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공동의 선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가톨릭 간호사들은 누구보다도 질병과 노령, 장애와 소외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힘 없는 사람들은 물론 도덕적 불감증으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마음의 병자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모님과 같은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참사랑을 전함으로써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호스피스의 역할과 결실

이 경 식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1960년대에 들어왔으나, 지난 20여 년 간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사회에 빛과 소

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놀라운 결실을 거두고 있기에 호스피스야말로 우리가 나가야할 시대적 증표라고 생각한다.